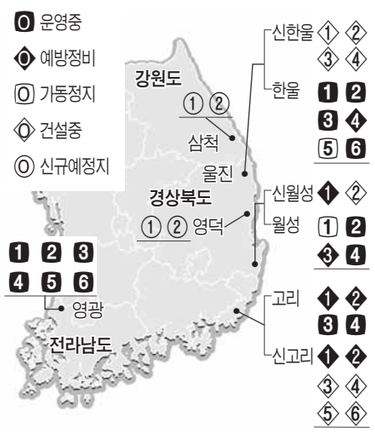
에너지 위기
탈핵·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

② 고장·비리의 온상 원전이 위험하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명성을 얻었던 원전 에너지가 각종 비리와 사고로 얼룩지면서 '비리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잃어, 안전성에 대한 근본대책과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빛(영광)원전 앞에서 열린 원전 안전성 확보와 반핵 시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불량부품 '잠재적 핵폭탄'… 국민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안전 직결 핵심부품 성적서 위조하는 '비리발전소'

최근 4년 사고 20% 이상이 人災… 탈 원전 목소리

"원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는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한국처럼 비리가 발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지난 5일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에 방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레인보우 워리어3'와 함께 한국을 찾은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대표의 말이다. 부끄럽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해 말 불량부품 문제가 터져나온 데 이어 안전을 보장하는 시험기관의 성적 위조 비리까지 발생함으로써 원전과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입증됐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낮은 사고율을 자랑하며 원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으로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련의 사태는 원전 안전성에 금을 내는 행위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키우고 있다.

◇원전 총체적 난국, 불안해서 못 살겠다=잇단 '원전 비리'가 불거지면서 원전의 신뢰성이 뒤흔들리고 국민에게 불신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동시에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급기야는 안전을 보장하는 시험기관이 중요 부품의 성적서까지 위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울주 신고리원전 1~4호기와 경주 신월성원전 1·2호기 원자로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부품은 일반 부품이 아니라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계통에 신호를 보내는 제어케이블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핵연료 냉각과 방사성물질 차단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지경에 이르자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전 반대와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핵단체들은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 위조돼 버젓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라며 "잇단 원전 가동 중단과 끊임없는 임직원 비리사건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짜서류로 납품된 수 1000개의 부품 사용과 원자로헤드 안내관 균열이라는 심각한 오류로 가동을 멈추면서 홍역을 치렀던 호남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한빛(영광)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이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원전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정부 입김이 반영되면서 '거짓 발표'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실은 모두 인재(人災)…앞으로가 더 문제=사실 원전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으로 알려지지 않아서지 사고와 비리로 인한 원전 안전성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kins.re.kr)에 따르면 1978~2013년 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672건에 달했다.

원인별로 계측·제어결함이 20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결함 178건(26.5%), 인적 실수 125건(18.6%), 전기결함 123건(18.3%), 외부영향 46건(6.8%) 순이었다.

원전별로는 고리(신고리 포함)원전에서 사고·고장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빛(영광)원전 154건(22.9%), 한울 원전 117건(17.4%), 월성(신월성 포함) 원전 104건 순이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신형 기종인 신고리 원전의 사고·고장이 11건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36년간 전국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의 약 18%가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은 사고 원인의 20%가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어디에 불량부품이 쓰였는지 모르는 상황에 사람의 실수까지 더해질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의 안전에 금이 간 상황에서 원전 23기 중 현재 9기가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전력난도 심화돼 연일 전력 경보까지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가 탈(脫)원전을 외칠 때 '원전 전도사'를 자처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결국 실패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터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지척에 '잠재적 핵폭탄'을 두고 살아왔다는 충격적 사실을 일깨워주고 막연했던 불안감이 실체화됐다는 것이다.

◇단계적 원전 폐지·신재생에너지 논의할 때=잇단 비리와 사고로 인한 원전 가동 정지로 가장 저렴한 에너지인 원전의 안전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대책과 함께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이 과연 국가의 존망을 걸고 의존할 에너지원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계적 탈핵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이제 국가가 '단계적 원전 폐지'라는 목표를 갖고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는 제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문제와 전력수급 대안 토론회에서 윤수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리한 원전 중심 정책과 원전 의존의 근본원인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산업용 전기를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원전을 짓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원전은 불안정한 전력원이므로 전력수급을 원전에만 의존하지말고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산업계 자가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 전력수급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삼희 공인중개사

부동산 빠른매매
(~ 50억가능)

급매매상담
(건물,상가,아파트,주택,기타)
법인소유부동산
지분부동산매매
미준공건물매매
경매진행중인물건
금융상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말소후 책임중개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062)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컨설팅사무소

★매 매★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접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 1576㎡ 매매가11억원(병원적합)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231㎡ 매매가 ㎡당 4천5백원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만원 (상가주택, 원룸신축적합)
* 화순읍 훈리 공간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임 대 2,3층 주택4곳임대 (융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3억7천만원

* 임대 *
* 동구 운림동 증심사 버스종점 아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호프 198㎡ 룸완비 보증금3천 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문흥지구 1층 꼬치구이 50㎡ 먹자골목내 중심상권 현성업중 보1천만원 월1백만원 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룸6개(큼) 현성업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성업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 만원 시비권있음
* 서구 벽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접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없음 (식당적합, 모든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번호 010-6636-0114 / 010-3627-3896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융자액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례예식장, 투자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공 장 매 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